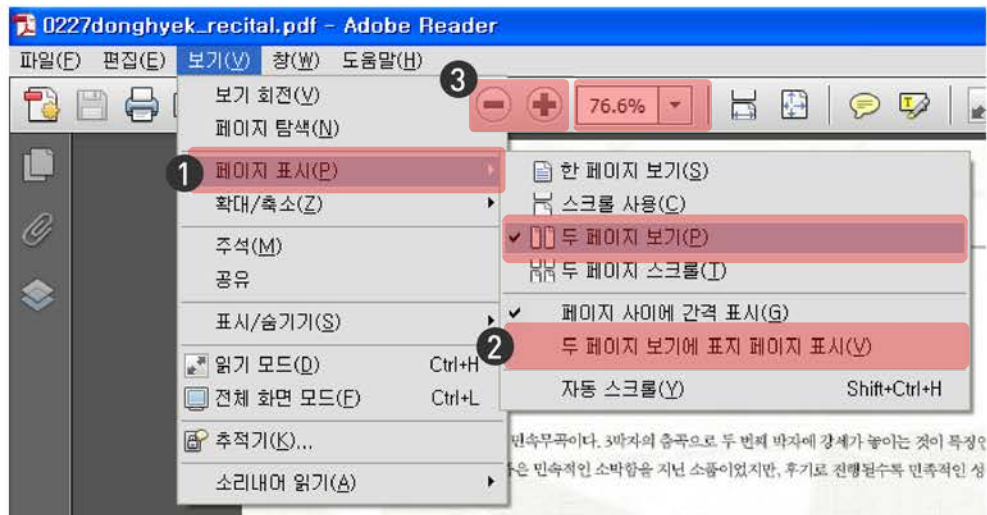


CREDIA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하여, 공연의 프로그램북을 온라인으로 제공합니다.  
아래 안내와 같이 설정해서 보시면 더욱 편하게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 Guide 1 프로그램북 2페이지씩 보기 (프로그램북이 한 페이지씩 보일 경우)



- 1 PDF reader 메뉴바\_보기\_페이지표시\_두 페이지 보기 선택
- 2 메뉴바\_보기\_페이지표시\_두 페이지 보기에 표지 페이지 표시 선택 해제
- 3  원본 사이즈로 보기  
  확대 및 축소는 -, + 버튼 클릭

## Guide 2 프로그램북이 2페이지씩 보일 경우 다른 설정 없이 보셔도 편안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

**MISCHA MAISKY & VIENNA CHAMBER ORCHESTRA**

CONDUCTOR **STEFAN VLADAR**

**CREEDIA**

2018  
CHAMBER  
ORCHESTRA  
SERIES —

© BERNARD ROSENBERG



© JUVAS BECH

2018.6.16.SAT.5PM | LOTTE CONCERT HALL

# MISCHA MAISKY & VIENNA CHAMBER ORCHESTRA

## 미샤 마이스키 & 비엔나 체임버 오케스트라

**프로그램** PROGRAM \_\_\_\_\_ 02

**아티스트** PROFILE \_\_\_\_\_ 08

지휘 슈테판 블라더 Stefan Vladar

첼로 미샤 마이스키 Mischa Maisky

연주 비엔나 체임버 오케스트라 Vienna Chamber Orchestra

**프리뷰** PREVIEW \_\_\_\_\_ 16

**인터뷰** INTERVIEW \_\_\_\_\_ 20



주최

**CREDIA**  
INTERNATIONAL

후원

**KOREAN AIR**

## 2018년 6월 16일 (토) 오후 5시 | 롯데콘서트홀

지휘 | 슈테판 블라더

첼로 | 미샤 마이스키

연주 | 비엔나 체임버 오케스트라

**P. I 차이콥스키** 1840-1893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엘레지(비가) G장조** 8'

**첼로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야상곡 D단조, Op.19 No.4** 5'

**로코코 풍 주제에 의한 변주곡, Op.33** 18'

- I. 테마: 모데라토 아사이 콰시 안단테 - 모데라토 셴플리세  
(안단테와 비슷한 모데라토의 빠르기로 - 중간정도의 속도로 단순하게)
- II. 제 1변주: 템포 델 테마 (테마의 템포로)
- III. 제 2변주: 템포 델 테마 (테마의 템포로)
- IV. 제 3변주: 안단테 소스테누토 (느리게 음악을 끝낼서)
- V. 제 4변주: 안단테 그라지오소 (느린 듯 우아하게)
- VI. 제 5변주: 알레그로 모데라토 (적당히 빠르게)
- VII. 제 6변주: 안단테 (느리게)
- VIII. 제 7변주와 코다: 알레그로 비보 (빠르고 활기차게)

중간휴식

**W. A. 모차르트** 1756 - 1791 **교향곡 제39번 Eb장조, K.543** 27'

- I. 아다지오 - 알레그로 (아주 느린 후 빠르게)
- II. 안단테 콘 모토 (느리지만 활기차게)
- III. 메뉴에토 알레그레토 (미뉴엣 풍으로 조금 빠르게)
- IV. 알레그로 (빠르게)

- 위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의해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휴대폰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 음악회 중에는 일체의 촬영 및 녹음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앙코르 곡은 크레디아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RICHARD MILLE



CALIBER RM 037

RICHARD MILLE BOUTIQUE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429 • 02) 512 1311

[www.richardmille.com](http://www.richardmille.com)

## 5PM Saturday, 16 June, 2018 at Lotte Concert Hall

Stefan Vladar, Conductor

Mischa Maisky, Cello

Vienna Chamber Orchestra

**P. I. Tchaikovsky** 1840-1893 **Elegy for String Orchestra in G major** 8'

**Nocturne in D Minor for Cello & Orchestra,  
Op.19 No.4** 5'

**Variations on a Rococo Theme, Op. 33** 18'

- I. Moderato assai quasi andante - Tema: Moderato semplice
- II. Variazione I: Tempo del Tema
- III. Variazione II: Tempo del Tema
- IV. Variazione III: Andante sostenuto
- V. Variazione IV: Andante grazioso
- VI. Variazione V: Allegro moderato
- VII. Variazione VI: Andante
- VIII. Variazione VII e Coda: Allegro vivo

### INTERMISSION

**W. A Mozart** 1756 – 1791 **Symphony No. 39 in Eb Major, K. 543** 27'

- I. Adagio - Allegro
- II. Andante con moto
- III. Menuetto (Allegretto)
- IV. Allegro

- This program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any notice.
- Before the concert begins, please switch off your mobile phones and electric devices.
- Recording and photographing are not allowed during the concert.

## P. I. 차이콥스키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엘레지(비가) G장조

차이콥스키의 숨은 가작이라 할 만한 이 작품은 1884년, 러시아의 위대한 배우 이반 사마린을 위해서 작곡되었다. 사마린은 1837년부터 1885년까지 모스크바 말리 극장에서 배우와 연출가로 전설적인 경력을 쌓았고, 모스크바 콘서트바토리의 연기분과 교수를 지냈다. 특히 그는 1879년 오페라 <예브게니 오네긴>이 말리 극장에서 초연되었을 때 연출을 맡으면서 차이콥스키와도 각별한 인연을 맺은 바 있었다.

1884년, 모스크바 예술가 협회는 사마린의 무대 경력 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기로 하고, 여러 예술가들과 접촉하면서 추진하였다. 차이콥스키는 이 공연을 위한 간주곡을 작곡하기로 했고, 그 결과로 탄생한 곡이 바로 이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엘레지'이다. 작곡 의뢰를 받았을 당시 차이콥스키는 <예브게니 오네긴>의 샤프테르부르크 공연을 준비하느라 무척 바빴지만, 러시아 극작가 협회장인 알렉산드르 오스트로프스키의 위촉을 기꺼이 수락했다. 그리고 11월초 친구 문병차 스위스로 향하던 길에 베를린에서 체류하며 곡을 완성했다.

사마린에 대한 오마주의 성격을 가진 이 작품은 같은 해 12월 모스크바 볼쇼이 극장에서 열린 '이반 사마린 주빌리 콘서트'에서 '감사의 인사'라는 제목으로 초연되었다. 현악 앙상블의 차분하고 유려한 흐름에 차이콥스키 특유의 애수 어린 정서가 담겨 있으며 중간부에서는 드라마틱한 움직임도 나타난다.

## P. I. 차이콥스키

첼로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야상곡 D단조, Op.19 No.4

차이콥스키 특유의 애수로 가득한 이 야상곡은 원래 1873년에 피아노 소품집 '6개의 소품(Op.19)' 중 네 번째 곡으로 작곡되었다. '안단테 센티멘탈레(느리고 감상적으로)'라는 지시어를 달고 있는 이 C#단조에 4/4박자인 이 소품은 A장조에 3/4박자의 중간부를 가진 3부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주부가 재현된 후 '운 포코 카프리치오소(조금 변덕스럽게)' 주제를 저음부에 둔 장식변주가 나오는 것이 특징이다.

그런데 차이콥스키는 1888년에 이르러 이 소품을 첼리스트 아나톨리 브란두코프를 위해서 편곡했다. 브란두코프는 <로코코 풍의 주제에 의한 변주곡>을 의뢰한 피첸하겐의 제자이자 차이콥스키의 가까운 친구였다. 브란두코프는 다비도프, 피첸하겐 등과 함께 러시아 첼로 악파의 비약적 발전을 견인한 탁월한 연주자였고, 차이콥스키는 그를 위해서 이 곡 외에도 자신의 오페라 <예브게니 오네긴>에 나오는 '렌스키의 아리아', <현악 4중주곡 제1번>의 느린 악장 '안단테 칸타빌레' 등을 첼로 독주용으로 편곡했다.



## P. I. 차이콥스키

### 로코코 풍 주제에 의한 변주곡 Op.33

차이콥스키는 정식 '첼로 협주곡'은 남기지 않았지만 첼로 솔로와 오케스트라의 협연을 위한 작품은 소수 남겼다. 그 중 잘 알려진 것이 바로 이 '로코코 풍 주제에 의한 변주곡'인데, 이 곡의 제목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로코코(Rococo)'라는 단어일 것이다. 음악에서 '로코코'라고 하면 바로크 시대에서 고전파 시대로 이행하던 시기에 유행했던 음악양식을 가리킨다. 이른바 '로코코 음악'은 우아함, 섬세함, 경쾌함을 특징으로 하며, 18세기 중엽을 전후한 시기에 주로 발달하여 고전파 시대까지 영향을 미쳤다. 다만 차이콥스키가 사용한 '로코코'라는 용어는 다분히 그 시대에 활약했던 한 작곡가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차이콥스키가 모차르트를 좋아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모차르트에 대한 그의 감정은 단순한 호감이나 동경의 차원을 넘어 깊고 순수한 사랑에 가까웠다고 전해진다. 그런 그의 애착이 단적으로 드러난 사례로서 '모차르티아나'라는 부제가 붙은 <관현악 모음곡 제4번>을 들 수 있는데, 이 모음곡을 구성하는 네 개의 악장은 모차르트 음악의 편곡으로 채워져 있다. 아울러 이 '로코코 풍 주제에 의한 변주곡' 또한 모차르트를 향한 그의 애정을 엿보게 한다. 즉 그의 모차르트에 대한 흥미가 고전파 음악에 대한 관심으로, 나아가 이 곡에서 단아하고 섬세하며 기품 있는 '로코코 풍' 주제를 취하는 방향으로 번져갔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 곡의 관현악을 고전적인 2관 편성으로 꾸렸고, 전면에 걸쳐 갤런트 스타일의 디베르티멘토식 서법을 지향했다. 덕분에 이 곡은 시종 '로코코 풍'이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장식 풍부한 선율과 화사한 색채, 우미한 분위기로 넘쳐난다. 그리고 거기에 차이콥스키 고유의 감각이 더해져 구석구석까지 온화한 감성적 뉘앙스로 충만하다. 아울러 첼로의 모든 기법적 가능성(음계, 아르페지오, 중음, 트릴 등)까지 아우른 까닭에 이 매력적인 변주곡은 첼로 협주작품 목록에서 기념비적 명작의 하나로 인정받으며 널리 각광받고 있다.

이 변주곡은 모스크바 음악원의 교수인 독일 출신의 첼리스트 빌헬름 피첸하겐의 의뢰로 1876년 12월에서 1877년 사이에 작곡되었다. 그런데 완성된 악보를 넘겨 받은 피첸하겐은 초연에 앞서 작품에 대폭 변경을 가했다. 즉, 그는 자신의 취향에 맞추어 원곡의 마지막 제8변주를 삭제하고 나머지 변주의 진행순서에도 변화를 주어 무대에 올렸던 것이다. 그것은 비록 작곡가의 원래 의도와는 어긋나는 일이었지만, 결과는 대성공이었고 결국 오늘날까지도 피첸하겐에 의한 수정판이 통용되고 있다. 그 판본에 따르면 전곡은 로코코풍의 주제와 이어지는 7개의 변주 및 코다로 이루어진다. 각 변주는 세밀한 변화를 수반한 리드미컬한 패시지와 아름다운 칸타빌레 등으로 느긋하면서도 탄력적으로 전개되다가, 알레그로 비보의 화려한 제7변주에 이르러 추진력을 얻어 빠른 속도감으로 열띤 고조로 치달으면서 코다로 넘어가 전체를 매듭짓게 된다.

## W. A. 모차르트

## 교향곡 제39번 Eb장조, K.543

1788년 여름, 모차르트는 자신의 마지막 교향곡 연작에 착수한다. 당시 그의 생활형편은 곤두박질치고 있었지만, 그의 창작력과 의지만은 그 어느 때보다 드높이 비상하고 있었다. 불과 6주 동안 세 편의 교향곡(제 39~41번)이 차례로 탄생되었는데, 모차르트는 이 곡들을 통해 교향곡이라는 그릇에 인간의 정신과 이상이라는 형이상학적 내용물을 담아낸 최초의 인물이 된다. 이른바 '고전파 교향곡'의 세계에서 가장 높이 평가 받고 있는 걸작들인 이 '3대 교향곡'은 예로부터 신비로운 혹은 경이로운 존재들로 여겨져 왔다. 작곡 동기나 목적, 연속해서 작곡된 이유, 실제 연주 여부 등이 오랫동안 베일에 가려있기도 했지만, 그토록 짧은 기간에 완성되었음에도 세 곡이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 곡 가운데 첫 작품인 'E b 장조 교향곡(제39번)'은 상대적으로 외면당해온 감이 없지 않다. 사람들은 대개 낭만적 파토스가 넘실대는 'G단조 교향곡(제40번)'이나 인상적인 별명(주피터)과 눈부신 피날레를 가진 'C 장조 교향곡(제41번)'에 주목하고 열중하는 반면, 이 교향곡에 대한 관심은 드문 듯하다. 하지만 이 작품의 매력과 가치는 결코 다른 두 작품에 뒤지지 않는다. 이 교향곡은 세 작품 중에서 유일하게 첫 악장에 느린 서주를 포함하고 있고, 모차르트의 모든 교향곡 가운데 유일하게 오보에가 배제되어 있다. 무엇보다 세 곡 중 가장 고전적이면서 우아한 기품을 지니고 있어 그 유려한 선율과 정연한 리듬, 다채로운 음색과 풍부한 울림이 이루어내는 아름다운 조화는 가히 천의무봉에 비견될 만하다. 그 음악은 마치 천상의 그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숭고하고 영화로운 광휘를 머금고 있다.

한편으로 이 곡은 '프리메이슨 정신'이 반영된 작품으로 간주되기도 하는데, 일례로 알프레드 아인슈타인은 이 곡을 '신전의 불빛 속으로 들어가는 타미노'에 비유하기도 했다. 확실히 곡 첫머리의 느린 서주에서 장엄하고 우아하게 울려 퍼지는 E b 장조 화음은 오페라 <마술피리>의 그것을 환기하는 면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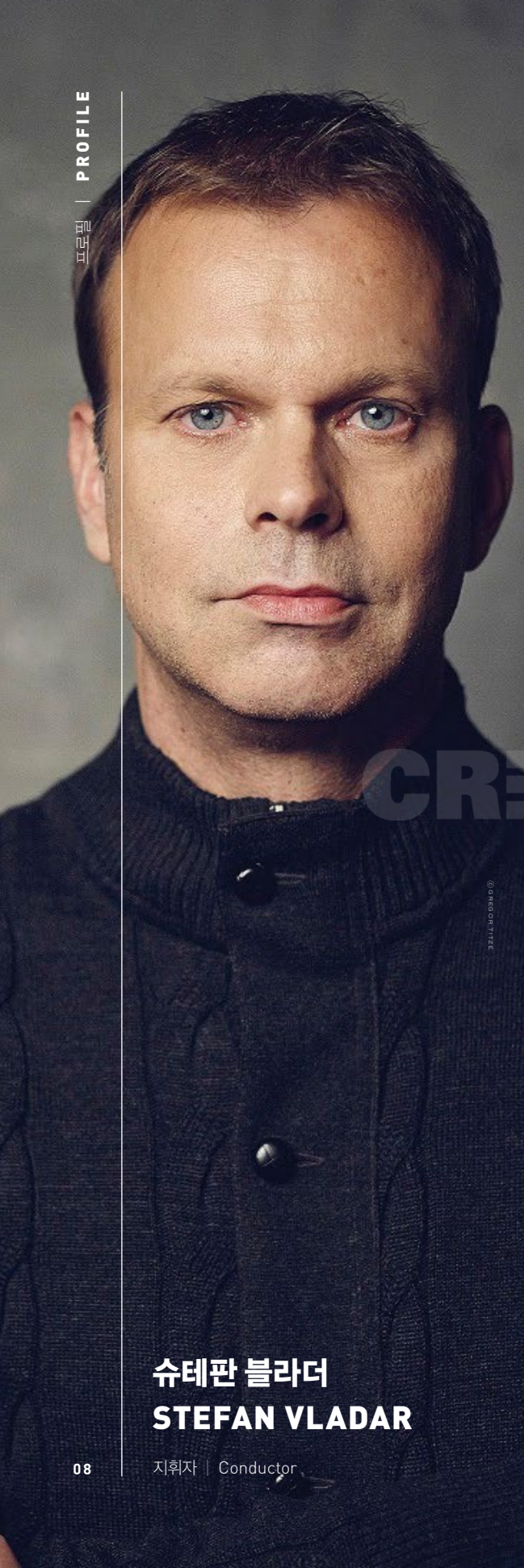
제1악장은 25마디에 이르는 장대하고 느린 서주로 출발한다. 투티의 장중한 화음이 부점리듬에 실려 당당하게 울려 퍼지고 그 사이로 매끄럽게 흘러내리는 음계가 멋진 대비를 이룬다. 알레그로의 제시부로 들어가면 우아하고 기품 있는 제1주제가 제1바이올린에서 흘러나오고, 당당한 행진곡 풍의 악구가 뒤따른다. 제1바이올린과 목관이 교대로 나오는 제2주제는 마치 하늘을 떠다니는 듯한 느낌을 주고, 뒤따라 나오는 악구는 구름을 밟으며 유유히 발걸음을 옮기는 듯하다. 발전부는 서주와 연계된 경과부의 소재를 바탕으로 구성되며, 이후 소나타 형식의 정형대로 재현부, 종결부를 거쳐 간결하게 마무리된다.

제2악장은 발전부 없는 소나타 형식으로, 두 개의 주제가 교대로 등장한다. A b 장조의 제1주제는 온화하고 안정된 느낌인데 반해, F단조의 제2주제는 불안하고 격정적이다. 두 주제의 대비와 얽힘, 그리고 단조부에 강렬함을 더하는 싱크페이션과 카논 기법이 인상적이다.

제3악장은 모차르트가 남긴 수많은 미뉴에트 중에서 특히 유명한 악장이다. 현악기의 스타카토로 펼쳐지는 미뉴에트 주제는 매우 역동성이며, 중간부 트리오에서는 클라리넷 2중주가 이끄는 목관 세레나데 풍의 음률이 우아하고도 천진난만하게 흐른다.

제4악장은 하이든 풍의 유머로 가득한 활달하고 유쾌한 피날레 악장이다. 출발과 동시에 매끄럽게 등장하는 제1주제가 전편을 지배하며, 제2주제 역시 제1주제와 연결되어 있다. 때문에 겉보기엔 하나의 주제를 구심점 삼아 다양한 소재들이 빙글빙글 돌고 있는 론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소재들을 교묘하게 통일시킨 치밀한 구성의 결과물이다. 투명한 울림의 경쾌한 흐름 사이에서 떠오르는 아기자기한 익살이 미소를 불러일으키는 흥미진진한 피날레이다.

글 | 황장원 (음악 칼럼니스트)



**슈테판 블라더**  
**STEFAN VLADAR**

지휘자 | Conductor

슈테판 블라더는 피아니스트이자 지휘자로서 다양한 능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음악가이다. 비엔나 국제 베토벤 콩쿠르 사상 최연소로 우승한 이력의 소유자로, 현재 가장 흥미롭고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로 각광받고 있는 음악가 중 한 명이다.

블라더는 2008년부터 비엔나 체임버 오케스트라의 예술 감독이자 상임지휘자를 맡아 오케스트라를 이끌며 오스트리아 전역과 세계를 투어하고 있다.

2017/18시즌에 슈테판 블라더는 지휘자이자 피아니스트로서 콜롬비안 심포니 오케스트라, 필하모니 주트베스트팔렌, 슈만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마카오 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 앙상블 가나자와, 프랑크푸르트 부란덴부르크 주립 오케스트라, 바트 라이센할 필하모닉 등과 연주할 예정이며, 솔레비히 홀슈타인 음악 페스티벌과 대만 타이베이 국립극장에서 피아노 리사이틀을 가질 예정이다.

피아니스트로서 블라더는 클라우디오 아바도, 리카르도 샤이, 크리스토프 폰 도흐나니, 다니엘 하딩, 크리스토퍼 호그우드, 루이제 랑그리, 네빌 마리너, 예후디 메뉴인, 오자와 세이지, 사이먼 래틀, 크리스티안 틸레만 등의 지휘 아래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 로얄 콘서트헤바우 오케스트라, 유럽 체임버 오케스트라,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도쿄 NHK 심포니 오케스트라, 로테르담 필하모닉, 툴랄레 오케스트라,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 카메라타 잘츠부르크와 같은 세계 정상급의 오케스트라와 공연을 가졌다.

지휘자로서는 비엔나 심포니 오케스트라, 카메라타 잘츠부르크, 헤이그 레지던스 오케스트라, 밤베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 모스크바 차이콥스키 오케스트라, 슈투트가르트 필하모닉, RSO 부다페스트, 덴마크 방송 교향악단, 그리고 쾰른, 바젤, 취리히, 프라하 등지의 체임버 오케스트라들과 작업했다.

블라더는 치몬 바르토, 재닌 안센, 이자벨 반 쿠오렌, 빅토리아 물로바, 줄리안 라클린, 하인리히 쉬프 등의 연주자들을 비롯하여 이안 보스트리지, 요한 보타, 요나스 카우프만, 안젤리카 키르히술라거, 토마스 크바스토프, 라몬 바르가스, 프리티 엔데와 같은 성악가들과 함께 공연하였다.

또한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라인가우 페스티벌, 솔레비히 홀슈타인 음악 페스티벌에 참가하였으며, 에든버러, 오사카, 홍콩 음악 페스티벌 등 다수의 공연과 페스티벌에 피아니스트이자 지휘자로 참여하였다.

슈테판 블라더의 음반은 30여 장에 이르며 소니, 도이치 그라모폰, 아르모니아 문디, 낙소스 등을 통해 발매되었다. 2009년에는 그의 탁월한 음악적 성과로 오스트리아 명예 황금 훈장을 받았다.

블라더는 비엔나 음악대학의 피아노과 교수로도 재직 중이다.

Born in Vienna Stefan Vladar is one of Austria's most remarkable musical personalities. He performs regularly as a conductor and a pianist in musical centres in Europe, America and Asia.

Since 2008 Stefan Vladar holds the position as Chief Conductor and Artistic Director of the Vienna Chamber Orchestra with whom he tours through the inland and foreign countries. In the 2016/2017 season, he conducted concerts in Vienna with soloist such as Bo Skovhus, Isabelle van Keulen and Julian Steckel.

In the 2017/2018 season Stefan Vladar will be performing both as a conductor and as a pianist with orchestras such as the Columbian Symphony Orchestra, the Philharmonic Orchestra Südwestfalen, the Robert-Schumann-Philharmonic-Orchestra Chemnitz, the Macao Orchestra, the Orchestra Ensemble Kanazawa, the Südwestdeutsche Philharmonie Konstanz, the Brandenburgisches Staatsorchester Frankfurt and the Bad Reichenhaller Philharmonnic Orchestra. Recitals will lead him to the Schleswig-Holstein Musikfestival and to Taipei, where he will perform at National Concert Hall.

In the last season, Stefan Vladar played together with and conducted a myriad of orchestras such as Lübeck Philharmonic, Columbian Symphony Orchestra, Concertgebouw Chamber Orchestra (tour) and Budweis Philharmonic. As a soloist, he was invited by Daniel Raikin to perform with the RTV Slovenia Symphony Orchestra.

His long-term musical partnership with the prestigious baritone Bo Skovhus was continued in the 2016/2017 season. Amongst others they performed Liederabende at the Muziekgebouw Amsterdam, Stuttgart and Zagreb. Stefan Vladar shares his passion for chamber music with several musical colleagues. In the last season he was on tour with a trio project with Daniel Ottensamer (clarinet) and Clemens Hagen (violoncello).

In the 2015/2016 season Stefan Vladar conducted the Moscow State Symphony Orchestra, the Portland Symphony Orchestra, the Bangkok Symphony Orchestra, the Cairo Symphony Orchestra and the Tchaikovsky Symphony Orchestra Moscow. As a pianist, he performed e.g. with the Radio Symphony Orchestra Prague and the Südwestdeutsche Philharmonie Konstanz and played solo recitals in Vienna, Zagreb, Munich and Budapest amongst others.

In autumn 2015 the Austrian Label CAPRICCIO started a close partnership with Stefan Vladar. The first release was a CD with piano solo compositions by Maurice Ravel. In October 2016, a 4CD-Box was released with the complete recording of Beethoven's solo concertos – 5 piano concertos, triple concerto, violin concerto, 2 violin romances [Stefan Vladar performing as a pianist and conducting the Vienna Chamber Orchestra, soloist Isabelle van Keulen and Julian Steckel]. In addition, a

recording of Schubert's three major song cycles with Bo Skovhus was released during the 2016/2017 season. Stefan Vladar's discography includes more than 30 releases for labels such as harmonia mundi and Sony Classical.

As a pianist, he has been performing under the baton of conductors such as Claudio Abbado, Christoph von Dohnanyi, Vladimir Fedosejev, Christopher Hogwood, Louis Langrée, Sir Neville Marriner, Sir Yehudi Menuhin, Seiji Ozawa, Sir Simon Rattle and Christian Thielemann in appearances with numerous orchestras such as Concertgebouw Orchestra Amsterdam, Academy of St. Martin-in-the-Fields, Bayerische Staatsorchester, Chamber Orchestra of Europe, Chicago Symphony Orchestra, NHK Symphony Orchestra Tokio, Vienna Philharmonic Orchestra, Vienna Symphony Orchestra and the Tonhalle-Orchestra Zurich.

As a conductor he has worked with the Vienna Symphony Orchestra, Camerata Salzburg, Residence Orchestra Den Haag, Bamberg Symphony Orchestra, Tchaikovsky Symphony Orchestra Moscow, Stuttgart Philharmonic, RSO Budapest, Danish Radio Symphony Orchestra as well as the chamber orchestras of Basel, Cologne, Prague and Zurich among others. He has performed together with soloists such as Tzimon Barto, Janine Jansen, Isabelle van Keulen, Viktoria Mullova, Julian Rachlin, Heinrich Schiff and with singers such as Ian Bostridge, Johan Botha, Jonas Kaufmann, Angelika Kirchschrager, Thomas Quasthoff, Ramon Vargas and Pretty Yende.

Stefan Vladar is professor of piano at the University of Music and Performing Arts in Vienna, Austria.



CREDIA

YANCOUS JASQUE ©

**미샤 마이스키**  
**MISCHA MAISKY**

첼리스트 미샤 마이스키는 로스트로포비치와 피아티고르스키를 모두 사사한 유일한 첼리스트로 알려져 있다. 로스트로포비치는 “젊은 세대의 첼로 연주가 중 가장 뛰어난 재능을 가진 연주가로 그의 연주에서는 대단한 열정, 뛰어난 테크닉과 더불어 시적 감성과 매우 아름다운 섬세함을 느낄 수 있다.” 라며 미샤 마이스키를 극찬한 바 있다.

라트비아에서 태어나 러시아에서 교육 받고 이스라엘로 귀환한 미샤 마이스키는 런던, 파리, 베를린, 비엔나, 뉴욕, 도쿄를 비롯한 세계의 여러 주요 공연장으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고 있다.

미샤 마이스키는 자신을 ‘세계시민’이라고 자칭한다.

“저는 이탈리아산 첼로를 연주하면서 프랑스와 독일산 활을 쓰고, 오스트리아와 독일산 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제 딸은 프랑스에서, 큰 아들은 벨기에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본 차를 운전하고 있으며, 스위스 시계를 차고 인도의 목걸이를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사람들이 음악을 좋아하고 즐겨주는 곳이 모두 집같이 느껴집니다.”

도이치 그라모폰(DG) 전속 아티스트인 미샤 마이스키는 지난 30년간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파리 관현악단, 유럽 오르페우스 챔버 오케스트라 등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함께 35장 이상의 앨범을 발매하였다.

또한 미샤 마이스키는 바흐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기 위해 세 번이나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Solo Suites)을 녹음하였다. 미샤 마이스키의 전성기라 할 수 있는 2000년도에는 바흐 작품으로 전세계 투어를 하며 무려 100회 이상의 공연을 하기도 하였다.

미샤 마이스키의 레코딩은 세계 언론의 극찬을 받고 있는데, 권위 있는 도쿄의 레코드 아카데미상을 다섯 번 수상했고, 세 번의 독일 레코드상(Echo Deutscher Schallplattenpreis)을 수상했으며, 파리의 그랑프리 뒤 디스크상(Grand Prix du Disque), 올해의 디아파종 도르상(Diapason d'Or) 등을 수상했고 그래미상의 후보로 여러 번 선정되기도 하였다.

세계적인 음악가이자 주요 국제 페스티벌의 단골 초청 연주가인 그는 레너드 번스타인, 카를로 마리아 줄리니, 로린 마젤, 주빈 메타, 리카르도 무티, 주세페 시노폴리, 블라디미르 아쉬케나지, 다니엘 바렌보임, 제임스 레바인, 샤를 뒤투아, 마리스 안손스, 발레리 게르기예프, 구스타보 두다멜과 같은 지휘자들과 연주해왔다.

또한 마르타 아르헤리치, 라두 루푸, 넬손 프레이레, 예프게니 키신, 랑랑, 피터 제르킨, 기돈 크레머, 유리 바슈메트, 바딤 레핀, 막심 벤게로프, 조슈아 벨, 줄리안 라클린, 재닌 안센 같은 저명한 다수의 연주가들과 협연하였다.

Mischa Maisky has the distinction of being the only cellist in the world to have studied with both Mstislav Rostropovich and Gregor Piatigorsky. Rostropovich has lauded Mischa Maisky as “one of the most outstanding talents of the younger generation of cellists. His playing combines poetry and exquisite delicacy with great temperament and brilliant technique.”

Born in Latvia, educated in Russia, after his repatriation to Israel, Mischa Maisky has been enthusiastically received in London, Paris, Berlin, Vienna, New York and Tokyo, along with the rest of the major music centers.

He considers himself as a citizen of the world: “I’m playing an Italian cello, with French and German bows, Austrian and German strings, my daughter was born in France, my oldest son in Belgium, the middle one in Italy and the youngest one in Switzerland, I’m driving a Japanese car, wear a Swiss watch, an Indian necklace and I feel at home everywhere where people appreciate and enjoy classical music.”

As an exclusive Deutsche Grammophon artist during the last 30 years he made well over 35 recordings with such orchestras as Vienna, Israel and Berlin Philharmonic, London Symphony, Orchestre de Paris, Orpheus und Chamber Orchestra of Europe and others. One of the highlights in his career was the year 2000 - it was mainly devoted to a world-wide Bach tour which included over 100 concerts! In order to express his deep admiration for this great composer, Mischa Maisky has recorded Bach’s Solo Suites for the third time.

His recordings have enjoyed world-wide critical acclaim and have been awarded five times the prestigious Record Academy Prize in Tokyo, three times Echo Deutscher Schallplattenpreis, Grand Prix du Disque in Paris and Diapason d’Or of the Year as well as the coveted Grammy nominations.

Truly a world-class musician and regular guest in most major International Festivals he collaborated with such conductors as Leonard Bernstein, Carlo Maria Giulini, Lorin Maazel, Zubin Mehta, Riccardo Muti, Giuseppe Sinopoli, Vladimir Ashkenazy, Daniel Barenboim, James Levine, Charles Dutoit, Mariss Jansons, Valery Gergiev and Gustavo Dudamel and his partnerships have included artists as Martha Argerich, Radu Lupu, Nelson Freire, Evgeny Kissin, Lang Lang, Peter Serkin, Gidon Kremer, Yuri Bashmet, Vadim Repin, Maxim Vengerov, Joshua Bell, Julian Rachlin and Janine Jansen to name just a few.

## 비엔나 체임버 오케스트라 VIENNA CHAMBER ORCHESTRA

1946년 창단된 비엔나 체임버 오케스트라는 명 지휘자 카를로 체치, 예후디 메뉴힌, 산도르 베그 등과 정통 모차르트 사운드를 구현해 온 비엔나 최고의 체임버 오케스트라이다. 크리스토프 에브를레, 필립 앙트르몽, 에른스트 코비치와 하인리히 쉬프가 비엔나 체임버의 상임 지휘자를 지냈고, 2004년부터는 조지 히토리가 수석 객원 부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2008년 5월부터 슈테판 블라더가 새로운 예술감독으로 부임, 비엔나 체임버 오케스트라는 명실상부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명성을 자랑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세계 최고의 지휘자, 솔리스트, 성악가들과 함께 한 연주는 비엔나 체임버 오케스트라의 세계적 명성을 입증하고 있다. : 표트르 안데르세프스키, 마르타 아르헤리치, 루돌프 바르샤이, 리디아 바히흐, 체칠리아 바르톨리, 옐레나 바쉬키로바, 옐리자베스 바티아쉬빌리, 테레사 베르간사, 이안 보스트리지, 루돌프 부흐빈더, 조셴 칼레야, 토마스 캐롤, 지안루카 카스키울리, 카렐 마크 시송, 유렉 듀발, 리처드 에가, 아드리안 에뢰트, 다니엘 라 팔리, 이자벨 파우스트, 아담 피셔, 디트리히 피셔, 디트리히 피셔 디스카우, 잉그리드 플리터, 라인홀트 프리드리히, 옐리나 가랑차, 옐렌 그리모, 에디타 그루베로바, 프리드리히 & 폴 굴다, 테오도어 구슬바우어, 클레멘스 & 베로니카 하겐, 린 하렐, 하인츠 홀리거, 재닌 안센, 키리 테 카나와, 안젤리카 키르히슐라거, 패리리카 코바친스카야, 마크 레이콕, 프랑수아 뢰리, 옐리자베스 레온스카야, 올레그 마이젠베르크, 자비에르 드 매스트르, 네빌 마리너 경, 빅토리아 울로바, 안나 넵트렙코, 지아난드레아 노세다, 에른스트 옌젠머, 엠마누엘 파후드, 바실리 페트렌코, 권터 피홀러, 토마스 크바스토프, 줄리안 라클린, 존 렐에야, 바딤 레핀, 파질 세이, 벤자민 슈미트, 페터 슈미들, 데이비드 스톤, 리처드 스톨츠만, 앙투안 타메스티, 우토 우기, 막심 벤게로프, 슈테판 블라더, 라도반 블라트코비치, 외르크 비트만, 한나 & 브루노 와인메이스터, 토마스 체트마이어 등이 있다.

또한 비엔나 체임버 오케스트라는 비엔나 콘체르트하우스에서 수많은 교향곡과 성악 공연을 하였고, 세계적인 콩쿠르와 마티네 공연 시리즈에서의 연주를 비롯하여 전 세계 주요 공연장과 페스티벌에서 공연하였다. 여러 국제적인 활동들 중 비엔나 체임버 오케스트라는 미국 프린스턴에 정기적으로 초대받고 있으며, 전세계에서의 투어공연과 유럽에서는 거의 모든 주요 도시에서 활발하게 공연 활동을 하며 비엔나 체임버의 국제적인 명성을 보여주고 있다.

The Vienna Chamber Orchestra was founded in the year 1946. The former chief conductor Carlo Zecchi and the guest conductors Yehudi Menuhin and Sándor Végh were special partners for the Orchestra. Chief conductors of the recent past were Christoph Eberle, Philippe Entremont, Ernst Kovacic and Heinrich Schiff. Since 2004, the Vienna Chamber Orchestra has been working with the associate guest conductor Joji Hattori.

In May 2008, Stefan Vladar was appointed the new chief conductor of the Vienna Chamber Orchestra. Together with him, the Orchestra could again clearly define its national and international rank.

The list of prominent conductors, soloists and singers demonstrates the international importance of the Vienna Chamber Orchestra: Piotr Anderszewski, Martha Argerich, Rudolf Barshai, Lidia Baich, Cecilia Bartoli, Elena Bashkirova, Elisabeth Batiashvili, Teresa Berganza, Ian Bostridge, Rudolf Buchbinder, Joseph Calleja, Thomas Carroll, Gianluca Cascioli, Frédéric Chaslin, Karel Mark Chichon, Jurek Dybal, Richard Egarr, Adrian Eröd, Daniela Fally, Isabelle Faust, Adam Fischer, Dietrich Fischer-Dieskau, Ingrid Fliter, Reinhold Friedrich, Elina Garanca, Hélène Grimaud, Edita Gruberova, Friedrich & Paul Gulda, Theodor Guschlbauer, Clemens & Veronika Hagen, Viviane Hagner, Lynn Harrell, Heinz Holliger, Janine Jansen, Kiri Te Kanawa, Angelika Kirchschrager, Patricia Kopatchinskaja, Mark Laycock, François Leleux, Elisabeth Leonskaja, Oleg Maisenberg, Xavier de Maistre, Sir Neville Marriner, Viktoria Mullova, Anna Netrebko, Gianandrea Noseda, Ernst Ottensamer, Emmanuel Pahud, Vasily Petrenko, Günter Pichler, Thomas Quasthoff, Julian Rachlin, John Relyea, Vadim Repin, Fazil Say, Benjamin Schmid, Peter Schmid, David Stern, Richard Stoltzman, Antoine Tamestit, Uto Ughi, Maxim Vengerov, Stefan Vladar, Radovan Vlatkovic, Jörg Widmann, Hanna & Bruno Weinmeister and Thomas Zehetmair.

The Vienna Chamber Orchestra plays a number of concerts in the Vienna Konzerthaus. In addition to hosting the series of Matinees and International Prizewinners, it appears as a guest in the Symphonie Classique and Voices concerts in the Main Hall of the Vienna Konzerthaus. It is also a guest at major festivals and concert halls worldwide. Among a number of other important international engagements, the Orchestra has repeatedly been invited to Princeton (US). The international reputation of the Vienna Chamber Orchestra is documented by worldwide tours and its regular appearances in virtually all major European cities.

**CONDUCTOR**

Stefan Vladar

**1ST VIOLIN**

Ludwig Müller *Concert master*  
 Eszter Augusztinovicz  
 Tiffany Wu  
 Marina Dimitrova  
 Marian Gaspar  
 Sabina Dascalu

**2ND VIOLIN**

Barna Kobori  
 Edua Zadori  
 Zoran Nogic  
 Réka Nagy  
 Erich Haderer

**VIOLA**

Cynthia Liao-Zottl  
 Marta Wnukowska  
 Katharina Traunfellner  
 John Moffatt

**CELLO**

Jonas Krejci  
 Marianne Bruckner  
 Milan Karanovic

**DOUBLE BASS**

Ciro Vigilante  
 Laszlo Magyar

**FLUTE**

Birgit Ramsl-Gaal  
 Sandra Stini

**CREDIA****OBOE**

Andreas Gschmeidler  
 Sebastian Frese

**CLARINET**

Wolfgang Klinser  
 Thomas Prem

**BASSOON**

Bernhard Krabatsch  
 Angelika Riedl

**HORN**

Andrej Kasijan  
 Michael Wachter

**TRUMPET**

Michael Bednarik  
 Mauro Musarra

**TIMPAN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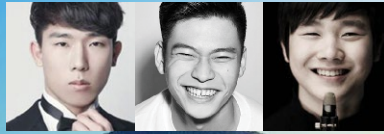
Willi Plamoser





하늘과 바다와 음악樂  
CIELOS WEEKENTOUR SPECIAL 1

# 통영스토리 1박 2일



모두가 꿈꿔온 여정  
자연과 음악,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함께 합니다.  
한 여름 통영의 푸른 바다에서 펼쳐지는  
음악의 감동에 초대합니다.



### 스페셜 프로그램

프로그램 1 | 8/17(금) 15시 30분  
렉처 <통영을 만나는 가장 멋진 방법>

프로그램 2 | 8/17(금) 19시 30분  
황인용 & 황덕호 토크콘서트 <나의 음악, 나의 인생>

프로그램 3 | 8/17(금) 20시 30분  
밋더아티스트 & 콘서트 프리 렉처

프로그램 4 | 8/18(토) 9시  
해안산책

프로그램 5 | 8/18(토) 13시  
실내악 마라톤 콘서트 <An die Musik>

\*출연: 임동혁, 지용, 황수미, 박지민, 문태국, 김봄소리, 김한

\*본 공연은 총 4시간 정도 진행되며, 리셉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여행일자 2018년 8월 17일(금)~18(토) 1박 2일
- 숙박 통영 스탠포드호텔
- 상품가 패키지 349,000원

### 클럽발코니&씨엘로스와 함께 하는 공감과 나눔의 문화여행

CIELOS WEEKENTOUR SPECIAL 시리즈는 아티스트, 문화 예술 명사와 함께 아름다운 자연에서 음악과 음악이야기를 나누고, 색다른 여행의 매력을 재발견하며 경험하는 클럽발코니 & 씨엘로스만의 특별 프로그램입니다.

### 음악여행의 하이라이트, 실내악 마라톤 콘서트 <An die Musik>

한 여름의 통영바다를 클래식으로 수놓을 실내악 마라톤 콘서트는 장장 4시간에 걸쳐 펼쳐지며 이번 여행의 아름다운 마침표를 장식할 예정입니다. 마라톤을 완주한 듯한 감동을 느끼며 연주자를 응원하고 공연의 여운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도 마련됩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음악이 주는 기쁨으로 충만한 아름다운 여정에 동행하세요.

문의 1577-5266 010-9799-5266 [www.clubbalcony.com](http://www.clubbalcony.com)



SIGNIEL  
RESIDENCES

대한민국 최고의  
주거공간  
시그니엘 레지던스

We would like to invite you to  
SIGNIEL RESIDENCES of LOTTE WORLD TOWER.  
Please experience the most-luxurious living-style in South Korea.

# The New Landmark of KOREA



Amen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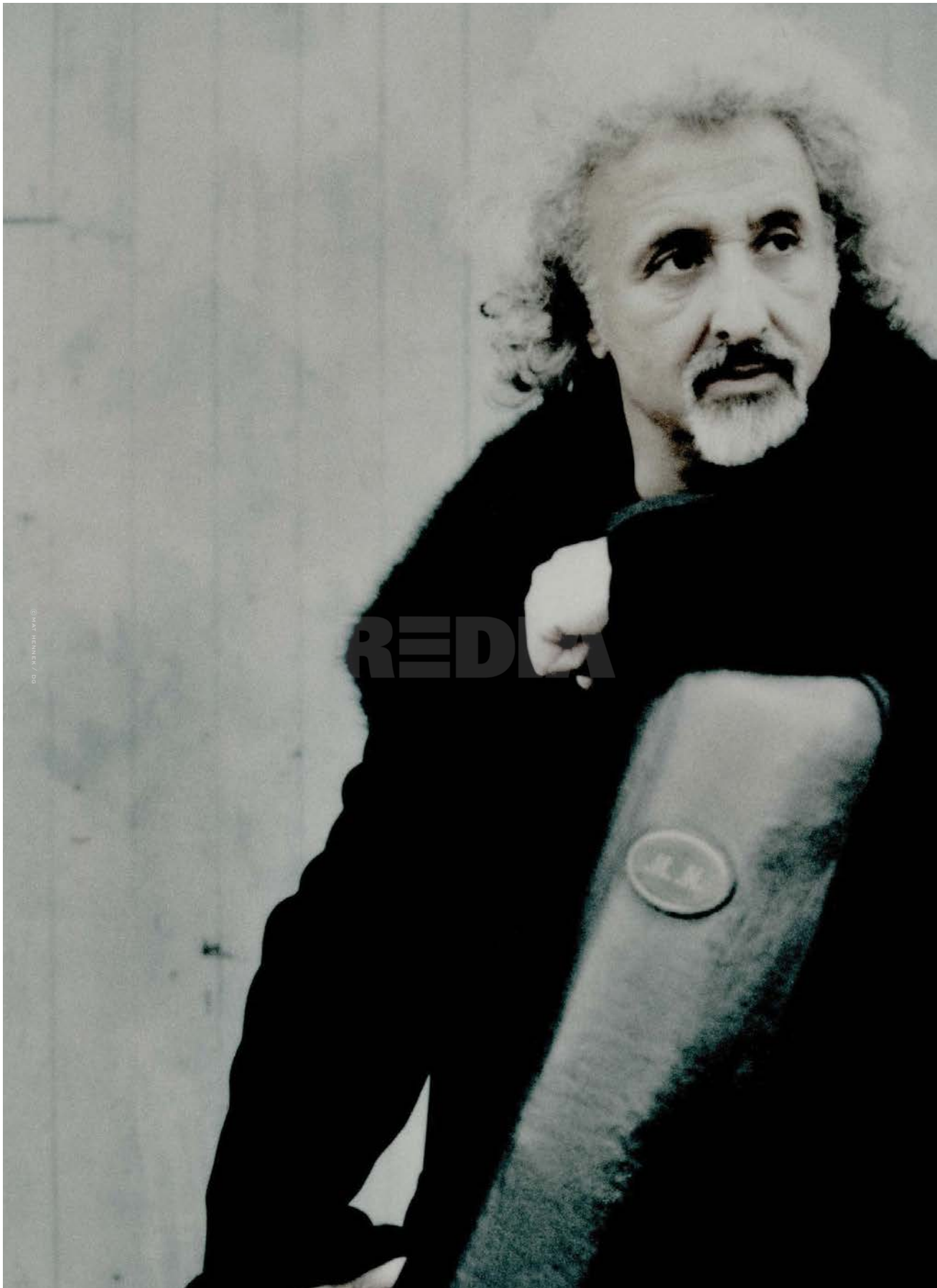


시그니엘 레지던스 공식분양대행사  
Official marketing Agency



JIWOO R&C  
Jiwoo Research & Consulting Co., Ltd.

문의: (82)-1670-2230



© MAF HENCK / DO

REDIA

첼로의 거장 미샤 마이스키가 내한한다. 이 사실 자체는 그다지 새로울 것이 없다. 세계 정상급 연주가 중에 마이스키만큼 한국을 자주 찾아오는 사람도 달리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내한공연에는 여느 때와는 사뭇 다른 의미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올해는 그가 70세를 맞은 뜻깊은 해이며, 이번 내한에서 그는 오랜 만에 해외 오케스트라와 함께 무대에 오르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이다.

올해 유럽에서는 이미 연초부터 마이스키의 70세를 기념하는 연주회 시리즈가 절찬리에 진행 중이다. 지난 2월 런던 바비칸 홀에서 열린 공연에서는 오랜 친구인 마르타 아르헤리치, 네덜란드의 바이올리니스트 재닌 안센과 호흡을 맞춰 가디언지(誌)로부터 별 5개의 극찬을 받았고, 3월에는 피아니스트인 딸 릴리 및 바이올리니스트인 아들 사사와 함께 함부르크, 쾰른, 베를린, 슈투트가르트 등 독일 7개 도시를 순회했다. 이 밖에도 네덜란드, 터키, 발칸반도 등 유럽 전역에 걸친 투어 스케줄이 지나갔거나 예정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5월 드레스덴에서 진행된 '첼로마니아(Cellomania)' 공연이 눈길을 끈다. 이 공연에서 마이스키는 피터 비스펠베이, 미클로시 페레니, 프란스 헬메르손, 안 포글러, 알반 게르하르트 등의 저명한 첼리스트 16인과 함께 무대에 올랐는데, 그야말로 현재 음악계에서 그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벤트가 아닌가 싶다.

## 전설로 남을 굴곡진 인생역정

옛 소련 시절인 1948년 1월 10일, 라트비아의 수도 리가에서 태어난 마이스키의 굴곡진 인생역정은 이제 거의 전설이다. 1966년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하기 1년 전, 레닌그라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며 데뷔했을 당시 그에게 쏟아진 찬사는 '미래의 로스트로포비치'였다. 그 후 모스크바 음악원에 진학하여 동경하던 므스티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를 사사했고, 소련 악단의 주목을 받으며 청운의 꿈을 꾸었지만, 뜻하지 않은 투옥은 그의 경력과 정신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의 누나가 이스라엘로 망명하자 그는 어이없는 누명을 쓰고 체포되어 18개월 교화형에 처해졌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병원 신세까지 지야 했던 것이다. 다행히 1972년에 그는 이스라엘로 탈출하여 망명에 성공했고, 그 후 미국으로 건너가 그레고르 피아티고르스키를 사사하여 당시 첼의 장막 양쪽의 대표 첼로 거장들이었던 '로스트로포비치와 피아티고르스키를 모두 사사한 유일한 첼리스트'라는 기록을 세웠다. 1975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그는 10여 년 동안 세계적인 연주가들과 협력하며 눈부신 커리어를 쌓았고, 1985년에는 최고의 음반사인 도이치 그라모폰(DG)과 전속계약을 체결하며 명실상부 정상급 첼리스트의 반열에 올라섰다.



## 유일무이한 거장과 함께할 최고의 체임버 오케스트라

그 후 30여 년 동안 한 번도 정상의 자리에서 내려온 적이 없는 마이스키. 이제 그는 전세계 모든 첼리스트들이 우러러보는 거장이자 더없이 강렬한 개성으로 무대를 압도하는 유일무이한 첼리스트로서 국제무대를 누비고 있다. 이번 내한공연에서 그는 비엔나 체임버 오케스트라와 호흡을 맞추게 되는데, 그가 해외 오케스트라와 내한하는 것은 2011년 시드니 심포니와의 협연 이후 7년만이다. 더구나 차이콥스키의 짙은 러시아 감성이 깊이 배어 있는 '야상곡'과 첼로 협주곡 '로코코 풍 주제에 의한 변주곡 Op.33'은 청중에게 그의 거장성을 또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기회를 제공할 희심의 선곡이다.

한편 그와 함께할 비엔나 체임버 오케스트라(VCO)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다. 1946년에 창단된 VCO는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비엔나)을 대표하는 실내 관현악단으로서 과거 하인리히 홀라이저, 카를로 체키 등 관록의 명장들과 함께 기틀을 잡았고, 필립 앙트르몽(피아노), 예후디 메뉴힌(바이올린), 하인츠 홀리거(오보에), 하인리히 쉬프(첼로) 등 스타급 솔로리스트 출신의 지휘자들과 협력하며 탄탄한 경력과 명성을 다져온 악단이다. 이번 내한 공연에서 이들은 역시 유명 피아니스트 출신인 상임지휘자 슈테판 블라더와 함께 모차르트의 '교향곡 제39번 Eb 장조'를 들려줄 예정인데, 아마도 빈의 격조와 풍미를 제대로 터득하고 있는 악단의 연주로 최고 수준의 모차르트를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 싶다.



120 YEARS  
DEUTSCHE  
GRAMMOPHON

# MISCHA MAISKY

Deutsche Grammophon  
Mischa Maisky & Lily Maisky  
**ADAGIETTO**  
Martha Argerich · Janine Jansen · Julian Rachlin · Sascha Maisky



첼로의 음유시인!  
**미샤 마이스키**

**ADAGIETTO**

2018년  
8월 17일  
발매 예정

이번 앨범은 마이스키가 그의 어린 딸 미라에게 헌정 하는 앨범이다

그의 딸이자 피아니스트인 릴리 마이스키가 함께 참여했다  
바흐와 마르첼로의 '아다지오'부터 그리그의 '솔베이지의 노래'  
마스네의 '타이스 명상곡' 등 유명한 곡들을 수록했다

또한 3개의 라이브 레코딩 보너스 트랙에는 마르타 아르헤리치,  
재닌 안센, 줄리안 라클린, 사샤 마이스키가 참여했다

FAVOURITE  
CELLO CONCERTOS  
Haydn · Dvořák · Schumann  
Elgar · Shostakovich  
MISCHA MAISKY

2CD

CATALOG

## 미샤마이스키 베스트 앨범 [첼로 협주곡 모음집]

레너드 번스타인과 빈 필하모닉과 함께한 슈만 '첼로 협주곡 A 단조'  
주세페 시노폴리와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와 협연한 엘가 '첼로 협주곡 E 단조'  
생상스 [동물의 사육제] 중 '백조' 등 수록

## INTERVIEW *with* MISCHA MAISKY

**# 70세를 기념하여 전세계에서 다양한 공연들을 하고 있으신데요. 70세를 맞은 소감이 어떤가요?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은 혹시 없나요? 만약 있다면 어떤 식으로 극복하십니까?**

사실 저에게 모든 공연은 음악의 존재 자체를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이기에 제 나이가 60이든 70이든, 모든 공연의 의미는 같아요. 이번 공연이 나의 마지막 공연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이벤트를 기념하기 보다는 모든 공연이 소중한 겁니다.

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녀야 하기 때문에 물론 매우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하는 일을 정말 사랑하죠.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하며 필수적입니다. 위대한 음악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을 위해 연주하는 것 자체를 즐기기 때문에, 힘든 때도 있지만 계속 할 수 있고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 인생을 돌아보며 음악적으로 가장 드라마틱한 순간을 꼽아보신다면요.**

많이 있지만, 1972년 (구)소련을 떠날 수 있어 저에게는 제 2의 인생을 살게 되었죠. 그것이 실현 된 것은 정말 행운이며 이에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의 스승 로스트로포비치와 피아티고르스키를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저에게 자랑스러운 일이자 감사하게 생각하는 일입니다. 로스트로포비치는 저에게 있어서 두 번째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파블로 카잘스가 세상을 떠나기 2달 전쯤에, 그의 앞에서 음악을 연주한 경험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음악가가 아닌 개인으로서는 나의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꼽고 싶군요.

**# ‘첼로 거장’의 자리에 오르셨지만 굴곡 많은 인생을 거쳐 오신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강제 수용소 생활 등의 흔치 않은 경험도 하셨다고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매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8개월의 수용소 생활, 그리고 그 충격에서 벗어나기까지 몇 달이 걸렸죠. 또 2개월간 병원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2년을 보내면서 제 첼로를 볼 수 없었다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그 모든 일을 22세 무렵에 겪었기 때문에 인격 형성과 성격에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언급하기는 힘들지만 물론 제 음악에도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죠. 그 일로 인해 저는 결국 모스크바 음악원 학위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인생 수업은 확실히 했죠. 그 모든 경험이 제가 음악인의 길을 걷는데 매우 중요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 오랫동안 사랑을 받는 기쁨은 어떠신가요?**

클래식 음악 공연을 보러 오는 사람들은 보통 풍부한 감정을 가진 섬세한 사람들 인 것 같습니다. 음악가들이 공연에서 마음을 열고 모든 것을 쏟아 붓고 나누고자 한다면, 관객들은 무의식적으로라도 느끼고 알아봐 준다고 생각해요.

마음이나 악기를 연주하는 손이 아닌 바로 제 심장에서부터 음악이 시작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항상 이를 위해 노력하고, 운이 좋게도 한국 관객들이 이런 제 방식을 좋아해 주는 거죠. 우린 서로 멋진 교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 한국에 자주 방문하시는데요. 한국 관객에 대해 어떤 인상과 기대를 갖고 있으신가요?**

1988년 첫 방문 이후 한국에 여러 번 방문한 만큼 익숙하지만, 항상 저에게는 흥미로운 곳입니다. 역사적인 유산이 많이 남아 있고, 서양의 클래식을 받아들이는 이해력도 놀라워요. 청중들은 민감하고 지적이죠. 긍정적인 기운을 갖고 있고요. 그들로부터 많은 영감을 받기 때문에 늘 한국을 다시 찾고 싶어집니다. 매년 한국에 올 때마다 한국 관객들과 따뜻한 인연을 맺어왔는데요. 이번에도 제가 한국에서 연주하는 것을 즐기는 만큼 관객들도 저의 음악을 즐겨주신다면 좋겠습니다.

**# 이번에 한국에서 연주할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모두 아름다운 곡이기 때문에 관객 분들이 음악을 즐기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엔나 체임버 오케스트라와는 차이콥스키를 연주 할 예정인데요. 일반적인 차이콥스키 곡과는 조금 다른, 모차르트에 대한 존경을 드러내며 쓴 <로코코 풍 주제에 의한 변주곡>은 매우 생생한 곡이며 관객들이 쉽게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작년 장한나가 지휘하는 트론하임 오케스트라와 연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한나와 공연 계획이 또 있나요? 한국에서도 만날 기회가 있을까요.**

그녀는 제가 만나 본 연주자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음악가입니다. 첼리스트로서도, 지휘자로서도요. 한니를 처음 만난 것은 그녀가 9-10살 즈음 되었을 때였는데 그때도 그녀의 음악성과 에너지, 총명함에 매우 놀랐지요. 작년 한나가 지휘하는 트론하임 오케스트라와 연주

한 것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몇 번 그녀와 함께 하였는데, 항상 다음 연주를 기대하게 됩니다. 사실 2020년 5월에 트론하임에서 그녀와 다시 한번 연주할 계획이 있지만, 그 전에 다시 함께 할 기회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클래식 팬들에게 어떤 음악가로 기억되고 싶으신지요. 음악가로서의 꿈이 더 있으신가요?**

제가 연주하는 음악을 사랑하고 존경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고, 제 자신보다 관객들을 위해 연주했다는 점을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연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주자는 곡을 작곡한 작곡가와 음악을 들어주는 관객들 사이의 메신저 역할을 인지하고 항상 겸손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알고, 사랑하고, 즐겼던 음악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최선을 다한 연주자였다고 저를 기억해주기를 바랍니다.

**# 혹시 마지막 무대에 서야 한다고 가정한다면 연주하고 싶은 곡이 있나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무대는 계획하지 않아요! 시간과 에너지가 없어 아직 시도해보지 못한 곡들이 많죠. 앞으로도 건강하고 활발한 활동을 유지해서 연주 레퍼토리를 넓히고 싶고 새로운 현대 곡들도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좋은 첼로 곡들이 굉장히 많아 고르기가 어렵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연주 할 가장 특별한 첼로 작품을 고르라고 한다면,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돈키호테' (2012년 <장한나의 앵슬루트 클래식> 무대에서 장한나의 지휘로 협연을 한 곡) 라고 할 수 있겠군요. 이는 모든 첼리스트들이 좋아하는 곡이고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One  
Night  
in  
Paris

조수미 콘서트  
**One Night in Paris #1**

**2018. 9. 5. WED. 8PM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주최 **CRE DIA Projects** 티켓 R석 18만원 | S석 15만원 | A석 12만원 | B석 8만원 | C석 5만원 예매 Club **BALCONY** 1577-5266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ANTONIO PAPPANO —

SEONG-JIN CHIO —

DANIEL TRIFONOV —

# 산타 체칠리아 오케스트라

## 안토니오 파파노

B석 / C석 매진

전석 매진

11.15 **thu**  
다날 트리포노프

11.16 **fri**  
조성진

8 **pm**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빈 필하모닉, 랑랑과 함께 떠나는 유럽 뮤직 크루즈 자유여행 9박 10일

아웃사이드 캐빈  
크루즈 내 전일정 식사, 음료, 와인, 맥주, 생수 포함  
지상 선상 공연 프로그램

전 세계의 음악애호가와 빈 필 오케스트라가 함께 탑승하여 매일 클래식 음악회를 여는 열흘간의 꿈 같은 크루즈 여행, 합리적인 비용과 자유로운 일정으로 떠나보세요!

- 여행 일자 : 2018년 9월 7일 ~ 16일 (9박 10일)
- 여행지 : 브레머하펜(독일) - 르아브르(프랑스) - 런던(영국) - 브뤼헤(벨기에) - 암스테르담(네덜란드) - 함부르크(독일)
- 상품가 : **695만원(4명 한정), 725만원(10명 한정)**  
(현금가, 항공료 및 여행 경비 별도)

- \* 본 여행은 모든 일정을 직접 계획할 수 있는 자유여행 상품입니다.
- \* 크루즈 선실 및 서비스, 공연티켓 포함
- \* 항공료와 기항지 여행 경비 불포함
- \* 발코니캐빈 및 패키지 상품은 별도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PROGRAM

- [공연1] **글라인드본 오페라 하우스** 빈 필하모닉 & 프란츠 벨저 뫼스트
- [공연2] **암스테르담 콘서트헤보우** 빈 필하모닉, 랑랑 & 프란츠 벨저 뫼스트
- [공연3] **함부르크 엘프 필하모니** 빈 국립 오페라 & 야담 피셔 <피가로의 결혼>
- [공연4] 테너 **피트리 베찰라 리사이틀** (선상 공연)
- [공연5] 알마 도이처 **리사이틀** (선상 공연)
- [공연6] 알마 도이처의 **오페라 <신데렐라> 하이라이트** (선상 공연)
- [공연7,8] 빈 필 앙상을 실내악 콘서트 (선상 공연)  
빈 필 공개 리허설  
연주자와의 만남 및 사회회, 록etch

\* 본 여행일정과 프로그램은 아티스트 또는 현지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계 최정상 아티스트와의 만남  
빈 필과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지휘자 프란츠 벨저 뫼스트 그리고 야담 피셔, 피아니스트 랑랑, 테너 피트리 베찰라 그리고 세계적인 음악신동 알마 도이처의 무대까지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기항지와 선상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음악여행  
매일 열리는 선상음악회와 오픈 리허설을 비롯, 글라인드본 오페라하우스와 암스테르담 콘서트헤보우, 그리고 최근 함부르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른 엘프 필하모니 기항지 콘서트까지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속 항구 르 아브르, 벨기에의 베네치아로 불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브뤼헤 등 아름다운 소도시와 런던, 암스테르담, 함부르크 대도시를 거치는 음악여행. 크루즈선은 밤새 움직여 매일 새로운 기항지에서 아침을 맞이합니다.



#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특별하게 모시겠습니다

대한항공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비행의 역사를 써 내려온 대한항공이 또 한 번 새로워졌습니다.  
더욱 쾌적하고 편리해진 대한항공의 특별한 서비스를 새로운 인천공항 2터미널에서 경험해보세요.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

미샤 마이스키 & 비엔나 체임버 오케스트라

지휘 슈테판 블라더

CREDIA

# CREDIA



CREDIA에 의해 창작된 프로그램북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3.0 Unported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REDIA의 저작물에 기초  
이 라이선스의 범위를 넘는 이용허락은 CREDIA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온라인 프로그램북 서비스는 클럽발코니닷컴에서 제공됩니다.

This e-book is exclusively provided by Club BALCONY.

[www.clubbalcony.com](http://www.clubbalcony.com)